

하나가 되는 꿈

Dream for Unity

이현희 / 경원대학교 건축, 실내건축학부 부교수

by Lee Hyonnie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폐막되었다.

대회 개막 전에는 참가를 당연시하던 북한의 태도가 개막 직전에 돌변하여 참가를 꺼려하자, 한쪽에서는 남측을 길들이려는 북한 측의 상투적 술책이라고 언짢아하였고, 한쪽에서는 “이 참에 안 오면 더 좋지” 라며 내심 반기도 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필자가 알게 된 것이 “하나가 되는 꿈(Dream for Unity)”이라는 대회주제였다.

북한의 참가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던 그 때, 남북한 화합의 지속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 측의 불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예측되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6000억원에 달하는데 북한의 불참으로 예상되는 감소분이 30% 이상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외신들의 대구체류도 축소될 조짐이 보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한민국이 북핵문제와 관련되어 거주하거나 사업하기에 적당치 않은 국가라는 인상이 강조되어 국가이미지에 막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했다. 금액 단위가 놀라웠고, 그런 계산이 신기했다.

대통령의 유감표명 이후, 다행스럽게도 북한 선수단과 그 ‘미인 응원단’, 취주악단이 대구로 입성하였고, 대구시민의 대회준비를 무산시키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적 가치창출도 기대하며, “하나” 된 듯 지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비방과 돌출행동, 얼룩진 기자회견, 상호비방, 문화관광부 장관의 “손님초대론”이 엉키면서 대회 기간은 그럭저럭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폐막을 같이 치렀다. 처음과 마지막은 적어도 하나였다. 형식적으로는.

대회 기간 내내 난 U대회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아니 최소한의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다. 우리가 홈그라운드 이점을 엄청 잘 살려서 번쩍이는 금메달을 몇 개 챙겼는지, 북한의 미인 응원단이 보여준 일사불란한 그들의 응원이 얼마나 웃기는 퍼포먼스였는지 정도가 그저 들려왔다. (적어도 필자가 들었던 공영방송의 저녁뉴스는 그렇게 전했다) 그러더니 대회가 끝날 무렵에는 왜 U대회를 남북한 교류전 정도로 전락시켰느냐, 북한 미녀 응원단 운운하면서 흥미위주로 보느냐, 등등 비난여론이 일었고 또 그것으로 주제를 삼아서 “토론”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부(?)하고 있었다. 언제나 처럼.

“하나” 이기를 원했지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갈래가 되었다. “자아비판”을 했다. 그리고 이제

는 아주 익숙하게 능숙한 솜씨로 비판한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참으로 별 볼일 없는 민족이고, 참으로 불쌍하고 어처구니없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저 무리들과 같이 있긴 하지만 다르기를 바라며, 내심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까지 한다. 8월 15일의 상반된 기념식(거의 시위라고 생각되었던)을 보면서 그들을 한 심해했다. 본질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U대회를 정리하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일본과의 여자축구 결승전에서 승리에 도취된 “미녀응원단”이 그 모든 기쁨을 목소리 모아 “장군”에게 상징하는 진풍경도 있었다.

어색했다. 우리도 그랬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지금도 간혹 연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본과의 남자배구 결승전이였다. 중반까지도 우리 팀은 열세에 물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경기에서의 그 찬란한 퍼포먼스 의무에서 비껴나 있던 북한 응원단 수뇌부가 비상회의를 했다. “지도자 동무”가 말했다. “상대가 누구야, 일본이야. 우리 재들을 반드시 이겨야 해” 라며 비장한 다짐을 전했다. 모두들 열성적으로 응원을 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들을 이겼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그때 남한의 남정네는 북한 미녀응원단에게 제일 먼저 감사를 표했다. 주변의 남한 주민들도 감격에 겨워했다.

상황을 전달하는 시각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혹시 우리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미명 하에, 표현은 자유롭다는 미명 하에 긍정적 이해보다는 부정적, 비판적 이해를 주로 즐겨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본질을 망각하고 부분에 편중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왜 마스크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주로 보여주었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도 많은데 왜 낮설고 어색한 미녀응원단의 퍼포먼스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을까,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서로 반목하고, 어색해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소지를 남겨준 걸까?

“건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다. 여러 업종, 여러 직종, 여러 단체가 있다. 동일 업종도 또 세분화되어 갖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개인이 한 단체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 각 단체는 상호 유관하며 상호 무관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이다.

건축인으로서 자주 듣고, 자주 하게 되는 말이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에 관한 것이다. 예술적 감각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국민을 안타까워하고, 모든 건축사를 예술가로 대해주지 않는 상황을 슬퍼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인정하고 투자해 주지 못하는 사회 상황을 속상해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이 별 볼일 없다고 비난이라도 할라치면 그 주범이 아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내심 자신의 “불참”을 안타까워한다. 비난받더라도 차라리 “주범”이 되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최근 건축계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제도의 변화, 자격의 변화, 체제의 변화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대처방법이 다르고, 행동강령도 다르다. 그래서 다시 세분된다. 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건축계가 “하나” 되어야 할 때라고. 원래 우리는 “하나”였으니까.

다시 가을이 왔다.

올 가을에도 각 대학의 졸업전시, 각 단체 주관의 행사가 올해도 전개될 것이다. 어느 건축사의 작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공범”이 되자. 공범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 따뜻한 눈으로 칭찬할 구석을 찾아보자. 그리고 찾는 데에 성공하면 우리들의 “행각”을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하나” 된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 “하나” 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적어도 “제 살 깎아먹는 짓”은 않도록 하자.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해서.

“벽을 넘어 하나로, 꿈을 펼쳐 미래로”
생각해보니 아주 근사한 말이다. ㉮